

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③

如是三毒 於一本體
 여시삼독 어일본체
 自爲三毒 若應現六根
 자위삼독 악응현육근
 亦名六賊 六賊者即六塵也
 역명육적 육적자즉육식야
 由此六識 出入諸根 貪着萬境
 유차육적 출입제근 탐착만경
 然成惡業 障真如體
 연성악업 장진여체
 故名六賊 一切眾生
 고명육적 일체중생
 由此三毒 及以六賊
 유차삼독 급이육적
 惑亂身心 沈淪生死
 흑란신심 침륜생사
 輪迴六趣 受諸苦惱
 윤회육적 수제고뇌

정계(三聚淨戒:부처님이 정한 규칙을 지켜 악을 막는 세 가지 법. 착한 법은 행하라. 중생을 이롭게 하라. 계율을 잘 지켜라)를 이루고, 육적을 돌이켜서 육바라밀을 이루면 절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又問曰 三毒六賊
 우문왈 삼독육적
 廣大無邊 若唯觀心
 광대무변 악유관심
 云何免彼無窮之苦
 운하면피무궁지고

또 물었다. "삼독과 육적이 광대 무한한데 오직 마음만 관한다고 해서 어떻게 한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答曰 三界業報
 답왈 삼계업보
 唯心所生 若能了心
 唯心所生 若能了心
 유심소생 악능요심
 於三界中 則出三界
 여삼계중 즉출삼계
 其三界者 則三毒也

이러한 삼독은 하나의 본체에서 짙로 삼독이 되어 만약 육근(六根)에 작용하면 육적(六賊)이 된다. 육적은 곧 육식(六識)이다. 이 육식이 육근을 드러내며 온갖 대상에 탐착심을 일으키므로 악한 업을 지어 진여를 가리게 된다. 그러므로 육적이라 일컫는다. 또

삼독이 육근에 작용하면 六賊

육적 돌이켜 육바라밀 이루어야

든 중생은 이 삼독과 육적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생사의 구렁에 빠져 육도(六途)에 윤회하면서 온갖 고통을 받는다.

猶如江河 因小泉源
 유여강하 인소천원
 涓流不絕 乃能彌漫
 涓流不絕 乃能彌漫
 연류부절 급능미만
 波濤萬里 若復有人
 파도만리 악부유인
 斷其根源 則源流皆息
 단기근원즉종류개식
 求解脫者 能轉三毒
 구해탈자 능전삼독
 爲三聚淨戒 能轉六賊
 위삼취정계 능전육적
 爲六波羅密 自然永離一切諸苦
 위육바라밀 자연영리일체제고

비유하자면 강물은 본래 조그마한 샘에서 발원하여 끊이지 않고 흘러서 마침내 물이 가득 넘실거리며 끝없는 파도를 이루게 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물줄기의 근원을 끊으면 모든 흐름이 다 쉬게 된다. 이처럼 해탈을 구하는 사람도 삼독을 전환하여 삼취

대답했다. "삼계의 업보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니, 마음만 깨치면 삼계 안에 있으면서 삼계를 벗어난다. 삼계가 바로 삼독이다. 탐심이 육계가 되고, 성내는 마음이 색계가 되고, 어리석은 마음이 무색계가 된다. 이 삼독심이 갖가지 악을 결집하여 업보를 이루어 육도를 윤회하게 되므로 이를 삼계라 한다. 또 삼독이 짓는 업의 경중에 따라 받는 파도도 달라서 여섯 곳으로 나누어지게 되므로 육도라 하는 것이다."

김원각(시인·역권위원)

헌 큰 스님과의 대화

서암스님

前 조계종 종정

으로 하여금 불교를 더 걱정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지난해 말 '불교 바로 세우기 법 불교 재가연대'가 결성된 것도 그러한 의구심에 대한 불교계 내부의 반성적 자기 점검이라 할 수 있겠다. '불교 바로 세우기'란 결코 불교계 내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9대 조계종 종정을 지내셨던 서암 큰스님을 뵈고 한국 불교의 혁신을 위한 경책의 말씀을 들었다.

“천하에 쉬운게 불교예요”

“자기마음 자기가 찾아 쓰라는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밖에서 찾아요”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교적 처방부터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불교는 마음 밝히는 종교예요. 그런데 모두들 바깥으로 손을 내저으며 어떤 위대한 힘이나 신비로운 능력을 구해요. 여기에서 모든 착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노력을 하지 않고 밖으로 기적이나 어떤 힘을 갈구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인 잘못이에요.

물질 추구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으로만 돌다보니까 믿을 거라곤 재물밖에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물질에 예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름이 생기고 혼란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내부 즉 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천하에 쉬운 게 불교예요. 세상에 불교보다 쉬운 게 없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찾아 쓰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숙이고 영동하게 바깥으로 헤매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겁니다. 자기 마음을 밝히면 세상은 저절로 밝아집니다.

—불교의 사회적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불교는 안타깝게도 사회적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불교 자체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 어찌 제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말 조계종단 분규 때도 일반 언론으로부터 이수라 조계종이라는 이유를 들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사회적 신용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불교 교유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고, 불교가 병들면 모든 게 병든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바른 이치가 통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지러울 수밖에요.

지금 이 말이 새삼스럽게 상처를 건드리지는 게 아니에요. 좀더 솔직히, 냉철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피자는 뜻이지요.

지금 서 있는 지점을 명확히 알아야 가야 할 목표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처님 가르침 한 마디라도 제대로 실천하면 되는 건데, 건강으로, 말로만 불법을 들먹이니까 병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 불교의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거기에 문제점도 있고 해결책도 다 들어있어요. 나 같이 산중에 사는 사람한테 물을 것도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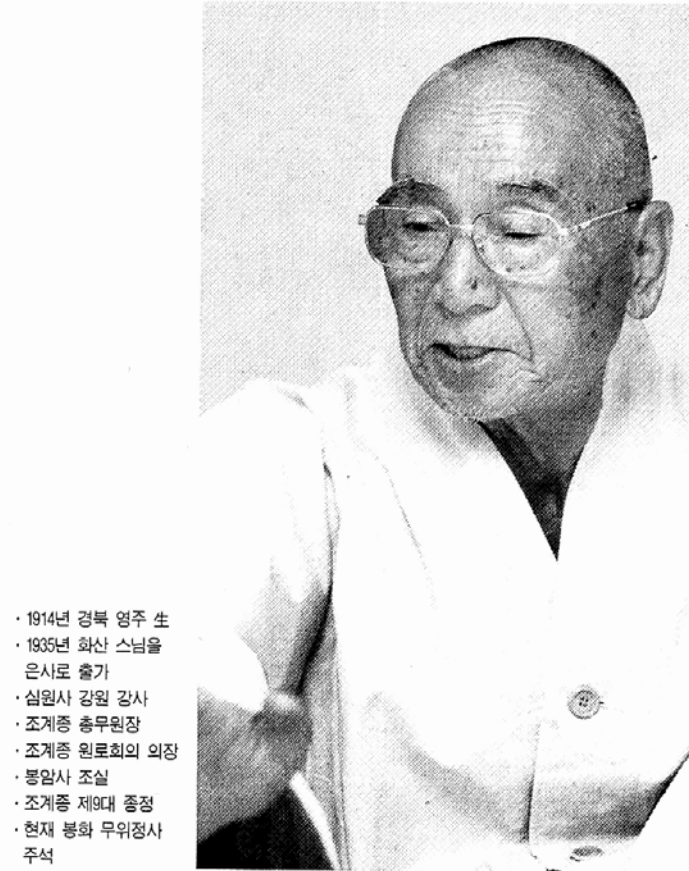
—불교계의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먼저 승려 자신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과연 '인천사(人天師)'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자기 반성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인천사'라는 게 뭘까. 인간 뿐 아니라 천상 세계에서도 스승이라는 말이예요. 그만큼 고귀한 존재가 바로 승려예요. 따라서 승려는 남을 제도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밝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중생 제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한암 스님 같은 분 보세요. 오대산에 가만 앉아서 설법 한 마디 안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았어요. 한암 스님 얼굴 한 번 못 보고, 음성 한 번 듣지 않았던 사람들도, 입만 벌이면 육지거리를 해내는 사람들도 한암 스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를 숙이곤 했어요.

참된 수행자의 덕화는 그런 겁니다. 향기와 같은 것이지요. 향기가 발을 불러모으듯이, 여법한 행동만으로도 중생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아도 화상이 법당을 짚어지고 왔습니까. 머슴살이를 하면서 이 땅에 불사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서 이 민족의 정신 세계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날 승려들은 옛 조사들의 그림자에만 안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루빨리 인천사로서의 자기 본분을 자각하고, 일거수일투족이 부처님의 제자



· 1914년 경북 영주 생
 · 1935년 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 실의사 강원 강사
 · 조계종 총무원장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 불암사 조실
 · 조계종 제9대 종정
 · 현재 불교 무위장사 주석

다워질 때 그 향기가 시방에 두루 퍼져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대형 불사 위주의 외형적 성장이나 행사 위주의 포교도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불교라는 종교의 바탕은 정신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물질적 성장추구는 비불교적인 거예요. 석가모니 오늘날 승려들은 옛 조사들의 그림자에만 안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루빨리 인천사로서의 자기 본분을 자각하고, 일거수일투족이 부처님의 제자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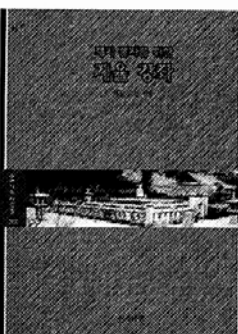
비구를 일컬어 걸사(乞士)라고도 합니다. 얻어 먹는 선비라는 말이지요. 얻어 먹을 정도로 일체중생을 다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중생의 스승이기 위해서 얻어먹는 것이고요. 이것만 봐도 불교는 돈 가지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부처님을 보세요. 부처님도 얻어지셨어요. 탁발의 정신 즉 걸사의 정신이란, 오히려 맨손으로 나왔어요. 물질로 세상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불교는 최소한의 물질로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생활불교 202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등은 바, 천지 어긋남도 없이 견뎌왔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서울구 경서동 110-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계율’의 참된 의미와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며,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하면 '계'보다도 '율'의 의미로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과는 요원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율보다 계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계'는 외부에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정신'이다. '율'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 것이다.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이라도 반드시 규칙이 있기 마련인데, 이 교단 규칙이 바로 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의 입장에서 율을 지키려고 하는 데 '지계'의 진정한 의미가 생겨난다.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계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불자로서의 자각은 '믿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해도 좋지만, 불자로서의 행동은 '계'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능 스님 엮음
 B6 변형 330쪽/ 값 6,500원

- 삼귀의계(三歸依戒) - 사불괴정경, 염삼보경, 일체사경
- 오계(五戒) - 우바세경
- 팔관제계(八關齋戒) - 지재경, 불살우바이타사가경, 불살팔관제경
- 십선계(十善戒) - 십선경, 순타경, 사경, 기림경, 가미니경
- 재가 불자의 윤리 - 자비, 담미까경, 더없는 행복, 피멸, 천한 사람, 대부호, 마넛뎀, 호자, 시랑스런 이, 교계심갈라경, 옥야경
- 대승불교의 계율 - 범망경 보살계, 재가보살계본, 대방광불화엄경 정행품, 대방광불화엄경 십지품, 불유교경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 -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 보살의 보석 염주, 마음의 훈련을 위한 열여덟 가지 공약, 더불어 살기 위한 열네 가지 계율, 서른여덟 가지 행복의 길, 발심수행장, 대승육정참회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